

J.J.MAGAZINE

KIM HONG JOO SIMPLY, INTUITIVELY

December 2015 | Wang Minah

page 1 of 4

DISCOVERY

EDITOR WANG MINAH COOPERATION KUKJE GALLERY

KIM HONG 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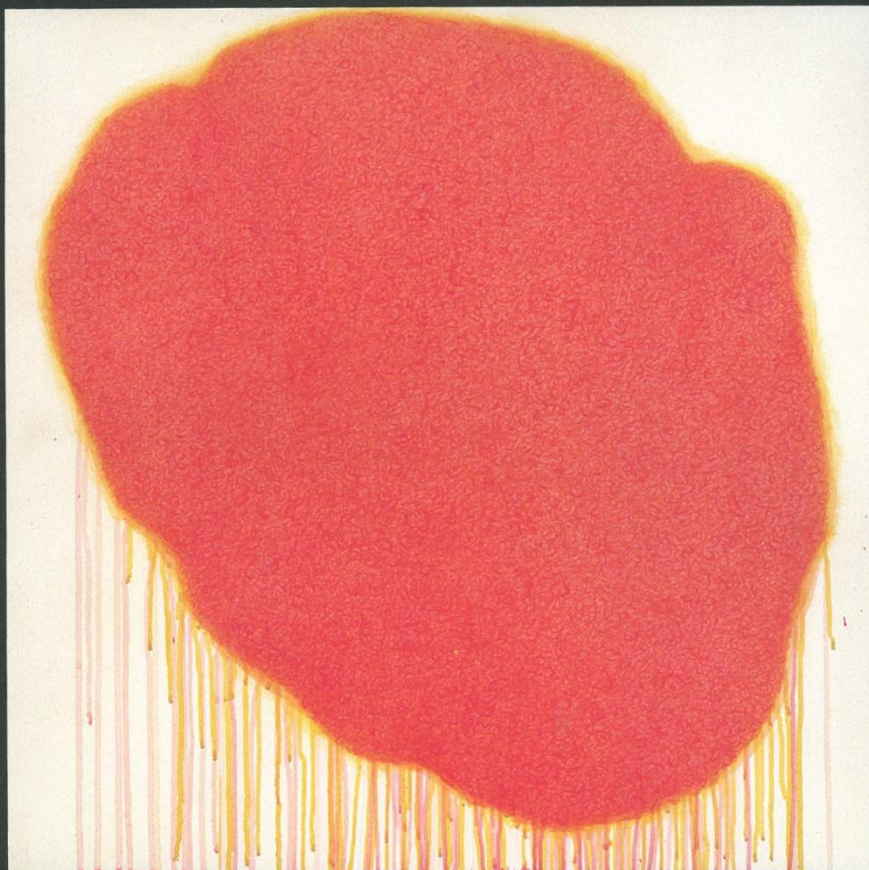
KIM HONG JOO SIMPLY, INTUITIVELY

December 2015 | Wang Minah

page 2 of 4

SIMPLY, INTUITIVELY

무엇을 보고 들든 다가오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한다. 가로막는 모든 것을
말끔하게 걷어내본다. 김홍주는 단순하지만 지극히 세밀한 것을 내밀어 보인다.



1
Untitled, 2011, 146x146cm
2
Untitled, 2013, 91x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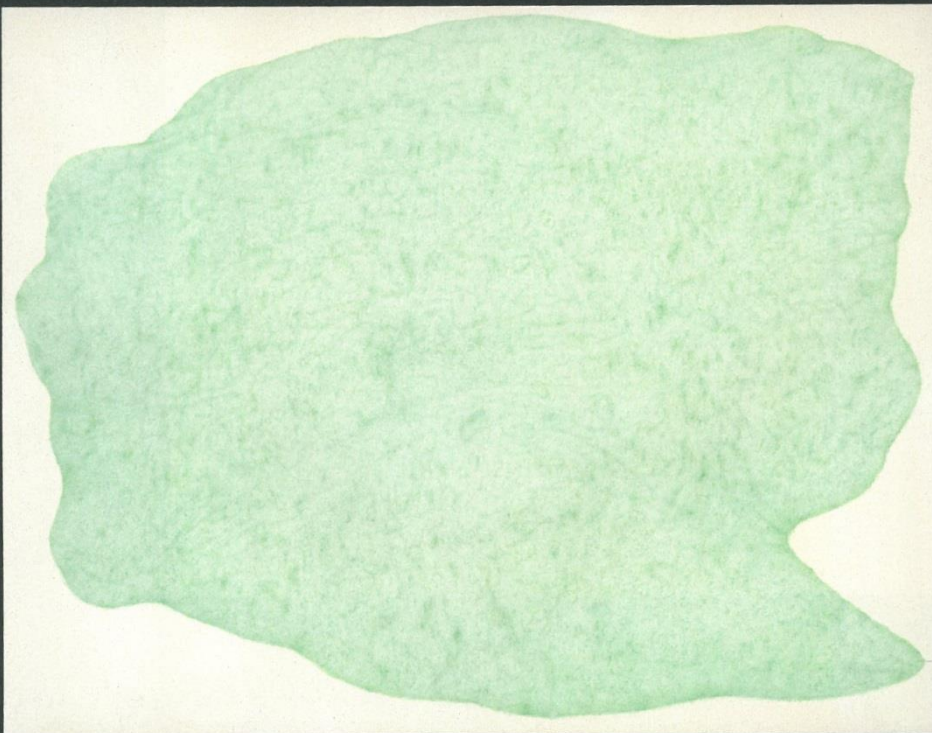
2

KIM HONG JOO SIMPLY, INTUITIVELY

December 2015 | Wang Minah

page 3 of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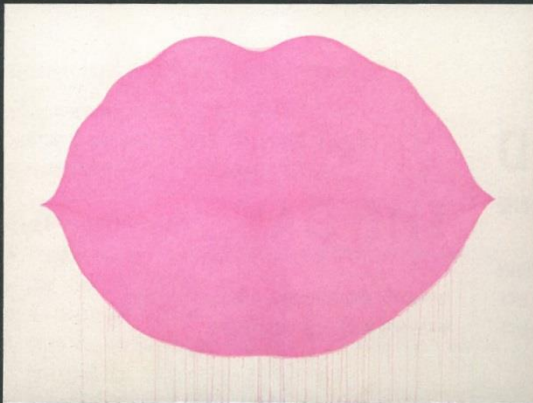
3
Untitled, 2013, 117x91cm
4
Untitled, 2014, 159x21cm
5
Untitled, 2012, 97x97cm



KIM HONG JOO SIMPLY, INTUITIVELY

December 2015 | Wang Minah

page 4 of 4



김홍주

1945년 충북 회인에서 태어나 청주사범학교와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현재 목원대 미술교육과 명예교수이다. 60년대 말에 ST그룹에서 활동했고,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는 하이퍼리얼리즘에 집중하여 극사실적 작업에 매진했으며 동시에 파리 청년 비엔날레에 참가하기도 했다.

김홍주 개인전, 2015. 12. 17 - 2016. 01. 24 국제갤러리 1관(K1)

아름다운 것을 만났을 때 꼭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좋은 걸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일까 묻는다면, 그저 그것을 바라볼 뿐이다. 무엇이든 각자 읽고 느낀 것을 두고는 분명 그것보다 더 깊고 심오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무작정 생각하고 볼 필요는 없다. 김홍주 작가가 말하는 지점은 아마 이쯤일 것이다. 그는 큰 것을 향해서만 고개를 돌리진 않는다. 다만 작은 것을 오래 들여다본다. 그렇기에 얇은 붓으로 얇게 그리는데, 그건 붓이러기보다는 손이라 해야겠다. 그의 손놀림은 '체화된 움직임'에 가깝다.

그는 부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재현을 기반으로 하는 추상 회화를 탐구해왔다. 어떤 것을 그린다는 의미 그 자체의 회화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한 그의 고유한 묘사는 사실적인 이미지 재현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한 회화의 근원적 요소인 '그리기' 자체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그 한계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회화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무는 존재이다. 작품의 배경에 대한 생각만 보더라도 회화에 대한 그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김홍주 작가의 작품에서 배경은 따로 두지 않는다. 지금 관람자의 눈으로 곧장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 곧 이미지가 등장하는 장소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배경, 이미지, 그리고 그것들의 조화가 기준이던 것을 뒤집었다.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이를테면 형식이나 방법 같은 것을 무작정 따르는 것이 꼭 필요한 걸지 생각해본다. 비단 미술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그리는 것을 넘어선 그리기를 보여준다. 어떤 도구를 이용해 무언가를 뱉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몸을 오롯이 사용해 스스로를 수련하는 쪽에 가깝다. 대단히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 안을 지탱하는 신념은 확고하며 단단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런 어떤 것인지 물어오는 소리가 외부에서 들려올 때면 그는 늘 '아무 이유 없다'는 단호한 대답을 들려준다. 이유 같은 건 없다. 그렇기에 형태의 종류나 의미의 해석에 연연하지 않고, 강박을 갖지도 않는다. 매순간 집중하고 있지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김홍주의 작품은 아주 크고, 겉결이 빼놓지 않고 곱다.

